



## 재 두 루 미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Gris vipio*

英名 White-naped Crane

이 새와의 남다른 인연을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3년 11월말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하던 평론지에 「철새와 만나서」라는 제호로 직접 새를 찾아 다니며 그들의 생활사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일주일에 한번 기고를 할때인데 김포 벌판을 헤메이던 중 한강하류 건너편인 파주군 교하면 문발리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많은 천연기념물 제 203호인 재두루미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316마리의 의식 확인은 국내기록으로는 전무후무한 숫자로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단숨에 달려간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94만평 갈대밭 습지에 1,000단위가 훨씬 넘는 재두루미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내 보도가 되면서 학계가 흥분하였고 다음해인 74년 12월에는 미국의 국제두루미재단 이사장 G. W. Archibold박사가 내한하여 문발리의 수색중대에서 철책을 드나들며 의무반을 빌려 한달간을 같이 기거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확인된 숫자는 1,507 마리였다

이런 숫자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재두루미의 90%가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후 이지역을 75년 2월 21일자로 천연기념물

제 250호로 지정하기에 이르렀고, 한강하류를 넘나들며 서식권이 되는 김포의 하상면까지의 지역을 확대하여 추가하게 되었다.

재두루미는 서 있을때 키가 140cm나 되는 흰칠한 키에 회색 정장을 입은듯한 겨울 멋장이다.

번식지는 시베리아 동부지역과 중국북부 자롱 자연보호구역의 광활한 습초지이고 등우리는 마른 갈대와 풀잎을 모아 화산형으로 짓는데 높이는 24cm 걸지름은 87cm쯤 되며 산좌의 깊이는 18cm쯤으로 오목하게 만들어 2개의 알을 낳아 30~33일쯤 품으면 부화가 되는데 한마리만 부화가 되면 나머지 알은 포기하고 둥지를 떠나버린다.

재두루미의 알은 평균 무게가 181.7g이고 긴지름 94.1mm를, 짧은 지름 61.4mm로 대단히 크며 먹이는 풀뿌리, 곡식의 낱알을 주식으로 하는데 재두루미 한 종류를 수년간 생태연구를 하고 있던 중국 자롱 보호구의 연구원들의 노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행주대교에서 오두산 전망대까지 길게 뻗은 자유로는 바로 이들의 삶의 터를 관통하여서 인지 지금은 오지를 잃고 비무장지대의 철원평야 임진강변에 많아야 300여마리가 매년 올 뿐이다.